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 7과, 요한일서 - 온전한 믿음. 4절 [3:9-4:6] 중심 경고; 5절 [4:7-14] 기초적 명령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7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4절 [3:9-4:6] 중심 경고. 5절 [4:7-14] 기초 명령.

요한일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책의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요한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는 복음 말씀의 사역, 즉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영역에서 냉담해지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히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 교리와 같은 믿음의 문제,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같은 행위의 문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같은 사랑의 문제를 번갈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수사학적 표현을 종종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그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계명을 잊지 않으셨고, 계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가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언급할 때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합니다. 이 두 부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핵심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근본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핵심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되는 경고는 가인의 오류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으로의 초대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그가 무언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무언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나 듣는 사람들, 만약 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그들의 눈앞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이 끝났을 때, 독자들에게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인상을 남기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이어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처럼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는 말씀을 가리킬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리스어는 후손이나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앞서 궁금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전해진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요? 요한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자신의 행위는 악했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노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아느니라. 물론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겠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할까요? 자녀들아, 우리는 말 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구절들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 아래, 중심적인 경고라는 제목 아래. 그래서 첫째, 분열이 있었습니다 . 219장, 그들은 우리 에게서 나갔고 ,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사람들도 있었고 , 서로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열의 여파 속에서도,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떠난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란과 이탈의 여파 속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거하지 않았고, 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도적 교제에서 스스로를 떼어놓았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개념 아래,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도 공동체를 떠나면서 증오심을 보인 사람들을 나도 따라야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앞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11절과 12절. 이것이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카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이고, 행동이며, 관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은 개와 좋은 개를 키우는 아이는 마치 친구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보기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광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생명체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들은 서로를 알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사랑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사랑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은 제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매우 진실한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메마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에게 사랑은 동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는 데서 드러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또한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낀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좀 더 냉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실재하시며, 나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카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세요 .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확인 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균열이 생겨 불안정해진 사람들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공동체의 분열에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많은 고통과 때로는 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많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다소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20절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십시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자, 이 구절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초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고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분열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열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슬픔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군가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잠도 못 자고, 어쩌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냥 견뎌내야 합니다 . 몇 시간, 어쩌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죠. 며칠 전, 큰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집에 돌아왔는데, 집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곳곳에 나무가 널려 있었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죠.

아시죠, 우리는 이걸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때요 .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저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그 파괴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그 시간 동안,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신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

하나님 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작은 마음의 불안정함보다 더 크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상의 80억 명 중 한 명,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수 세기 동안 하나님께 살아온 수천억 명 중 한 명,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의 유한함과 미약함을 초월하는 안정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는 믿음, 순종, 그리고 사랑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도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는 것이 있으며, 계명이나 행함 이나 순종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요한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약속을 듣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글을 쓰는 지금쯤, 아마도 50년 동안 성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확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통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결혼 생활은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개별적으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임재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며, 요한은 여기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소환장을 발부 해야 합니다 . 이 더 넓은 부분에서 그는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오리라 함을 들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는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이 시들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 이토록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 하나는, 사랑은 순진한 속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내가 긍정하는 것, 내가 따뜻하게 느끼는 것, 내가 기분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영들, 목소리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주장이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를 드러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신성하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성이 그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빛이신 하나님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어둠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이것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정의합니다.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어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곧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이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차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그가 처음에 옳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당신이 내린 결정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10년이나 20년마다 예수님이 교회가 고백한 그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신화"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북미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오신다는 개념이 실제로는 고대 신화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과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저스 세미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저스 세미나 참석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투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색깔의 구슬을 사용했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나요?" 주기도문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는 다른 확실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은 항상, 끊임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절 무렵 CNN 같은 곳에서도 악령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언론에 관심을 갖도록 충격적인 내용을 홍보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요한은 단지 “우리가 본 것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사도적 증인들입니다.

선택한다면, 여기 당신의 확신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여기 당신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겨냈다.

즉, 교회 안의 분열 세력인 그 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즉 사도적 우리와 사도적 메시지를 확증하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압니다. 첫째, 굳건함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안에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분보다 더 크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확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움직임이 오고 가고, 주장이 오고 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함없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배할 때 발생합니다.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5절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떠난 사람들, 즉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 구절 이후로 그 파벌에 대해 경고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매우 복잡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것들은 모두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적인 구조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신의 경쟁자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권위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스스로 더 스마트한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어떤 초월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교회 권위가 될 때입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세상이 지지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도들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들의 시험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이란 생각, 주장, 가르침, 그리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영들, 즉 더러운 영들, 거룩하지 않은 영들, 즉 마귀의 하수인, 사자, 하수인인 영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선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신이 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세상에는 서로 상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있고, 어둡고 나쁘고 파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즉 사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날카롭게 다듬고, 정련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부분, 핵심 경고입니다. 가인의 오류를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분별력을 얻으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함을 갖게 되고, 사도들의 메시지와 사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다루고 싶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근본적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믿어야 할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의 중요성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명의 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사랑 권고 중 첫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으로, 아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를 통해 살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라는 단어는 '조에', 즉 생명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사는 '자오'이지만, 앞서 살펴본 '비오스'와는 다릅니다. 비오스는 매일, 하루하루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동성입니다. 죽은 몸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몸의 활력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7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발산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발산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빚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그들은 사랑이 없음을 드러냈고, 그는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리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라는 점만 언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강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할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위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은 전달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하심을 전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거야. 그는 동시에 어디에나 있어. 그는 어디에나 존재해.

나는 오직 나 자신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많은 전능한 것들 , 즉 하나님에 대해 모두 진실이고 완벽하게 진실인 것들이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과 나눌 수 있는 속성이며,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타인을 돌보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 중 누가 더 사랑을 잘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고양이가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물도 사랑할 수 있듯이, 사람도 물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척도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 특히 속죄입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화해 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집례할 때 항상 이 메시지를,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완벽한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도록 보내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신성한 행위이며, 특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서 본 적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몇 가지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촉진합니다. 축매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축매제는 무언가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것이 자극을 받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서 벗어나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또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끕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고 완전해집니다. 즉, 의도된 효과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하거나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행하고, 결과를 낳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몇 년 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 살다 보면, 가끔은 사소한 것을 보거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카드를 보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애쓰는 걸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뿐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적합한 전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준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앉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 그리고 항상 혼자 앉아 있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옆에 앉아준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나이 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가끔은 나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죽어가고,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누군가가 와서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을

걱정해 준다는 건 그들에게 정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듯이 그 자체로 위대하고 고귀하며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진실이 드러나고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물론, 사랑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 영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앞으로 기도할 때 목록을 작성하고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나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니라.”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확신을 증언합니다.

“우리 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의 청중이나 독자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특히 요한일서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만져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을 증거하며 끝맺습니다. 이로써 요한일서 5부는 끝납니다.

이 부분은 로버트 야브러 박사와 그의 요한서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7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4절 [3:9-4:6] 중심 경고. 5절 [4:7-14] 기초 명령.